

경인 아라뱃길과 교량 그리고 소통(疏通) Ara-Waterway, Bridges and Communication



장석윤(Suk-Yoon Chang) 명예회장 |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 명예교수 | (주)이산 고문 | changsy@uos.ac.kr

1. 서론

오늘날 편리한 교통수단 발전으로 사람들 간의 왕래와 물류 수송이 증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은 육로, 해상 그리고 항공 교통으로 분류된다. 교통(交通)을 말할 때 우리는 그 기능과 같은 수단만 생각하기 쉬운데 넓은 의미로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그리고 나라와 나라를 연결해주는 소통(疏通)의 의미가 깊게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교통을 영어로 번역할 때 Transportation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중국은 교통을 Communication으로 번역하고 있다. 두 가지 옳은 번역이겠지만 필자는 Transportation의 기능적인 번역보다는 Communication이라는 깊은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번역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새로운 소통(疏通)의 교통시설이 될 우리나라 최초로 건설된 운하인 경인 아라 뱃길을 유람선을 타고 김포 아라 터미널에서 인천 아라 터미널까지 18 km 뱃길을 둘러볼 기회를 얻었다. 필자는 대학에서 오랜 세월 토목공학을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하였으며, 특히 교량공학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

였었다. 국내 최초 운하인 경인 아라 뱃길에 설치된 여러 가지 형식의 아름다운 교량을 유람선을 타고 가면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교량 전체를 관람할 수가 있었다. 대부분의 교량이 설치되면 일반 차량을 타고 교량을 지나가기 때문에 교량을 전체적으로 볼 수 없어 매우 아쉬웠는데 이번에 참으로 좋은 기회를 얻었다.

세계사를 보면 운하를 설치하는 목적이 외부로부터 적의 침입을 막고 충분한 물의 양을 확보시켜 농업에 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인운하의 건설은 역사적으로 보면 고려시대 고종 때부터 계획이 시작되었다고 하나 운하를 건설하면서 당시 토목기술의 한계로 진행하다가 중도에 중단되었다고 한다. 21세기 현대에 들어와서 첨단 토목 기술의 덕분으로 그 결실을 맺어 다용도 목적을 갖는 국내최초의 운하가 건설되었다.

당시 계획되었던 때는 운하 주변으로 도시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운하만 건설하고 뱃길만 그 기능을 유지하여 마무리된다면 한 가지 목적만 갖고 있고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소통의 기능은 얻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경인 아라 뱃길을 가로 지

르는 16개의 교량은 아라 뱃길로 인하여 새롭게 단절된 양쪽 도시를 이어주는 소통의 가교가 되었다고 필자는 느꼈다.

필자는 경인 아라 뱃길따라 건설된 아름다운 여러 가지 형식의 교량을 보면서 우리나라 토목기술이 많이 발전하였음을 느꼈으며, 또한 토목 기술자로서 이번 기회에 토목인의 위상이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감이 들었다. 그대로 방치해 두면 흉물로 되어버리는 강재, 콘크리트재료를 통하여 토목 기술가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소통의 재료로 승화시켜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는 소통의 마술사임을 잠깐 생각하여 보았다.

아라 김포 터미널에서 유람선을 승선하여 유유히 경인 아라 뱃길을 가다보니 교량과 함께 뱃길 양안(兩岸)에 펼쳐지는 자전거도로, 인공폭포 등 다양한 시설이 정말 잘 설치되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다양한 색깔로 옷을 입고 가족, 연인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 잠시 전망 데크(Deck)에서 쉬면서 손을 흔들며 반가움을 확인하는 서로의 모습이 정말 즐겁기만 하였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흘러 유람선은 마지막 교량을 지나 서해바다로 나가는 인천 아라 터미널에 도착하였으며 관문 너머로 서해바다가 눈에 들어옴을 확인하였다.

경인 아라 뱃길을 유람선을 타고 지나면서 가까이서 교량을 둘러보며, 교량이 단절되었던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의 갈등을 해소해주는 소통의 귀한 도구임을 다시한번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깨달았다. 요즘 젊은이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한 디지털 소통을 원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뱃길, 교량이 우리에게 아날로그 소통이 되겠지만 이 시대에 소중한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